

##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div> <div>보도</div> <div>2017.1.12.(목) 중간</div> <div>배포</div> <div>2017.1.11(수)</div> </div>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02-2100-2666)	담 당 자	박 보 라 사무관 (02-2100-2668)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오 용 석(02-3145-6700)		김 봉 한 팀 장 (02-3145-6710)
	금투협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 신 동 준(02-2003-9016)		이 환 태 부 장 (02-2003-9200)

## 제 목 : 2016년 소규모편드 정리 실적 및 향후계획

- **지난 1년 동안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한 결과,**  
 '16.12월말 현재,
  - **소규모 펀드 수는** '15.6월말(815개) 대비 689개 감소한 **126개**
  - **소규모 펀드 비율은** '15.6월말(36.3%) 대비 29.1%p 감소한 **7.2%**
-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자산 규모가**
  - '15.6월말 958억원 → '16.12월말 **1,135억원**으로 증가(18.5%↑)하여
  - **펀드 운용효율성 제고 및 공모펀드 신뢰기반 형성에 기여**

## I. 추진 경과

- 금융위·금감원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15.11.30.)하였으며,
  -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16.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준속기한: '16.2월~'17.2월)
- 모범규준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매분기말(3·6·9·12월말)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제출하는 등 소규모펀드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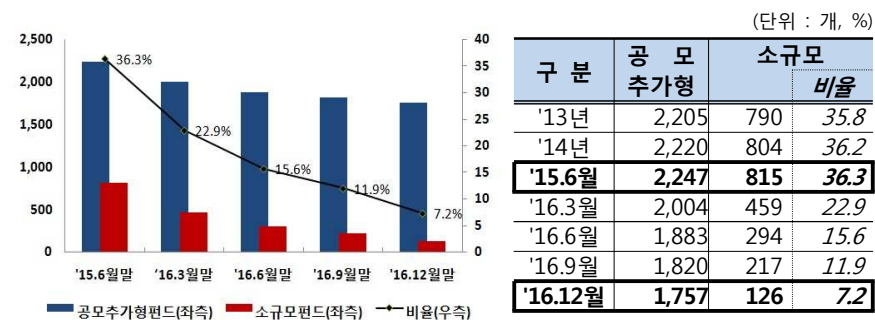
## II. 16년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 및 기대효과

## 1.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

- 모범규준 시행('16.2월) 이후 소규모 펀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5.6월말(815개) 대비 689개 감소한 '16.12월말 126개 기록(84.5%↓)
- '15.6월말 36.3%를 기록하였던 소규모 펀드 비율\*도 '16.12월말 7.2% 까지 대폭 하락

\* 소규모펀드 비율 = 소규모펀드 수 /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기간별 소규모 펀드 차이



## 2. 자산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

- ('16.12월말 기준) '16.12월말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53개사) 중,
- 감축 목표비율(5%)을 충족한 운용사는 23개사이며, 소규모 펀드가 전혀 없는 운용사도 KTB, 흥국, 현대 등 10개사
  - 감축 목표비율(5%)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는 30개사로, 이 중 신규 펀드 등록이 제한된 운용사는 18개사\*

\* 12개사는 등록제한 예외사유에 해당(공모펀드 10개 이하&소규모펀드 5개 이하)

□ (연중 실적) '16.3·6·9·12월말 모두 목표비율\*을 충족한 운용사는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도이치 등 9개사\*\*

\* ('16.3) 19% → ('16.6) 11% → ('16.9) 7% → ('16.12) 5%

\*\*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도이치, 라자드, 맥쿼리, 에셋플러스, BNK, 현대

○ '15.6월말 대비 '16.12월말, 감축한 소규모 펀드수가 많은 운용사 상위 5개사는 하나UBS(83개), 미래에셋(62개), 삼성(57개), 키움(53개), 한국투자신탁(46개) 順

### 3. 기대 효과

❶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규모가 '15.6월말 958억원 → '16.12월말 1,135억원(18.5%↑)으로 증가

⇒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펀드 운용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❷ 펀드매니저 당 펀드수가 '15.6월말 3.8개 → '16.12월말 3.0개 (21%↓)로 감소

\* 공모추가형 펀드수(모펀드기준) / 공모펀드 운용 펀드매니저수

⇒ 펀드매니저의 운용·관리역량 집중을 통한 운용성과 제고 및 투자자신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III. 향후 계획

□ '17년 중,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18.2월까지 연장\*하여 지속 시행할 예정

\* 연장예고를 시행('17.1.5~'17.1.25) 중이며, 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의견 수렴 중

○ 그간, 모범규준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업계 건의사항 및 연장예고 중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행할 방침

### 붙임

### 자산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

※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기준 : 최상위 펀드(모펀드) 기준 (부실자산펀드, 舊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 제외)

※ 목표비율 : ('16.3) 19% → ('16.6) 11% → ('16.9) 7% → ('16.12) 5%

구분		16.3월말 기준			16.6월말 기준			16.9월말 기준			16.12월말 기준			목표 충족 여부	신규 설정 제한
		공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비중		공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비중		공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비중		공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비중			
1	라자드	1	-	-	1	-	-	1	-	-	1	-	-	총 족	-
2	맥쿼리	1	-	-	1	-	-	1	-	-	1	-	-		
3	브레인	-	-	-	-	-	-	-	-	-	1	-	-		
4	에셋플러스	5	-	-	5	-	-	5	-	-	5	-	-		
5	도이치	11	2	18.2	10	1	10	9	-	-	9	-	-		
6	BNK	12	2	16.7	10	-	-	10	-	-	10	-	-		
7	유진	13	6	46.2	11	3	27.3	12	3	25	10	-	-		
8	현대	15	2	13.3	13	-	-	13	-	-	13	-	-		
9	흥국	25	6	24	20	2	10	21	1	4.8	20	-	-		
10	KTB	30	5	16.7	26	3	11.5	26	4	15.4	21	-	-		
11	키움	84	9	10.7	79	8	10.1	81	6	7.4	79	2	2.5		
12	신영	45	8	17.8	42	6	14.3	38	1	2.6	38	1	2.6		
13	교보막사	36	5	13.9	36	5	13.9	36	4	11.1	33	1	3.0		
14	동양	46	12	26.1	38	4	10.5	36	3	8.3	33	1	3.0		
15	신한BNP	116	21	18.1	105	10	9.5	97	6	6.2	93	3	3.2		
16	미래에셋	286	50	17.5	289	27	9.3	281	14	5	280	10	3.6		
17	한화	98	32	32.7	83	7	8.4	82	4	4.9	80	3	3.8		
18	KB	107	19	17.8	101	12	11.9	101	6	5.9	104	4	3.9		
19	동부	24	6	25	21	1	4.8	22	2	9.1	23	1	4.4		
20	하이	45	8	17.8	43	4	9.3	43	5	11.6	44	2	4.6		
21	이스트스프링	48	10	20.8	45	4	8.9	43	3	7	43	2	4.7		
22	삼성	195	36	18.5	190	20	10.5	186	13	7	191	9	4.7		
23	멀티에셋	29	5	17.2	25	3	12	21	-	-	21	1	4.8		
24	한국밸류	19	1	5.3	19	1	5.3	19	1	5.3	19	1	5.3	미 충 족	제한
25	맥쿼리투신	23	5	21.7	17	1	5.9	17	1	5.9	17	1	5.9		
26	트러스트	13	-	-	13	-	-	13	1	7.7	15	1	6.7		
27	한국	122	20	16.4	118	11	9.3	117	9	7.7	117	8	6.8		

구 분		16.3월말 기준			16.6월말 기준			16.9월말 기준			16.12월말 기준			목표 충족 여부	신규 설정 제한
		공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공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공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공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8	프랭클린템플턴	31	4	12.9	29	1	3.5	29	1	3.4	29	2	6.9	제한	
29	NH아문디	54	9	16.7	51	5	9.8	49	3	6.1	50	4	8.0		
30	아이비케이	44	15	34.1	40	13	32.5	40	10	25	32	3	9.4		
31	메리츠	10	2	20	11	2	18.2	10	1	10	10	1	10.0		
32	얼라이언스번스틴	8	1	12.5	9	1	11.1	9	1	11.1	10	1	10.0		
33	유리	26	8	30.8	22	3	13.6	21	4	19	20	2	10.0		
34	하나UBS	121	62	51.2	117	63	53.9	100	46	46	66	7	10.6		
35	슈로더	19	5	26.3	16	1	6.3	16	1	6.3	16	2	12.5		
36	마이다스	22	5	22.7	21	4	19.1	22	4	18.2	21	3	14.8		
37	대신	36	18	50	35	18	51.4	26	11	42.3	19	3	15.8		
38	플러스	11	2	18.2	12	1	8.3	12	2	16.7	12	2	16.7	미 충족	제한
39	스팩스	5	-	-	5	-	-	6	1	16.7	5	1	20.0		
40	베어링	20	11	55	15	6	40	14	3	21.4	14	3	21.4		
41	피델리티	22	4	18.2	23	5	21.7	23	5	21.7	23	5	21.7		
42	알리안츠	22	8	36.4	21	8	38.1	21	7	33.3	18	4	22.2		
43	칸서스	10	3	30	8	1	12.5	8	1	12.5	9	2	22.2		
44	알파에셋	4	1	25	4	1	25	4	1	25	4	1	25.0		
45	DGB	8	3	37.5	7	2	28.6	7	2	28.6	7	2	28.6		
46	제이피모간	25	6	24	23	5	21.7	21	5	23.8	21	6	28.6		
47	현대인베스트	7	1	14.3	7	1	14.3	7	2	28.6	7	2	28.6		
48	블랙록	19	3	15.8	17	5	29.4	17	5	29.4	17	5	29.4		
49	골든브릿지	3	2	66.7	3	1	33.3	3	1	33.3	3	1	33.3		
50	HDC	9	3	33.3	9	3	33.3	9	3	33.3	9	3	33.3		
51	유경피에스지	3	1	33.3	3	1	33.3	3	1	33.3	3	1	33.3		
52	파인아시아	5	3	60	5	3	60	5	4	80	5	4	80.0		
53	코레이트	11	9	81.8	9	7	77.8	7	5	71.4	6	5	83.3		
합 계		2,004	459	22.9	1,883	294	15.6	1,820	217	11.9	1,757	126	7.17		

미  
충  
족

제 한

제 한

제 한

제 한